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

(롬11:11~24)

15.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16.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17.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19.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20.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으므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21.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덴마크의 영화감독 토마스 빈터베르그의 2012년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The Hunt'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 루카스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전형적인 아동 성추행 범이 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가 아이들을 성추행 했을 것이라고,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확신하는 데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전혀 성추행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그 루카스라는 유치원 남자선생님을 성추행과 연관 지어서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는데, 며칠 안으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선생님을 성추행 범으로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전형성에 근거한 판단, 전형성이라는 건 성추행 범이라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정말 성추행 범이 아니라도 성추행 범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한다고 정해놓은 전형적인 어떤 행동들의 항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런 행동들의 항목에 몇몇 가지가 맞춰질 수 있다고 해서 그냥 totally 성추행 범이라고 몰아붙여버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전형성에 근거한 인간의 확신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유치원에 순진무구한 5살짜리 여자 아이가 하나 있어요, 클라라라고 하는 아이가.
근데 어느 날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이 여자 아이가 원장 선생님에게 말합니다.
'나는 루카스 선생님이 싫어요!' 원장님이 물어 보잖아요 '왜?'
'그 루카스 선생님의 고추를 봤어요!' 이 이야기가 불거지고 부모들 사이에 논란이 되면서, 그 유치원에 있는 다른 아이들까지 루카스 선생님의 지하실에 가봤다고 거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루카스 선생님의 집에는 지하실이 없습니다.
그 지하실의 벽지와 소파 색깔까지 아이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클라라가 그냥 해 본 거짓말이었는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일이 번지고, 다른 아이들까지 이상한 이야기를 막 하면서 루카스 선생님을 몰아가니까, 본의 아니게 루카스 선생님이 몰리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자기 말이 거짓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상황은, 이 클라라가 거짓말이라고 한 이 말을 어른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 선생님이 성추행 범이라고 하는 의심을 풀지를 않게 됩니다.

참 이런 일이 많지요.
'절대 확신'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내가 절대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신을 했던, 감정적으로 확신했던, 감정적으로 확신이라는 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그 미움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확신, 엄청나게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때가 많은데도 확신을 할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확 할 그 당시에는 나 자신으로서는 절대적입니다, 그 확신이.
아! 요런 일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는?
그래서 마크 트웨인이 말해요, '인간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은 무지가 아닌 잘못된 확신이다.'
몰라서 궁지에 빠지는 일이 물론 있기는 있겠습니다마는, 더 큰 문제는 잘못된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확신이라고 하는 옷을 입게 돼버리면 빠져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의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네 번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확신과 연관되어서 볼 때, 네 번의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가, 구절구절이 이해하기가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paragraph 별로 잘라서 보면, 그 속에 사도바울께서 말하시려고 하는 주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구절이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paragraph 전체를 크게 그 주제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다 보면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확신과 연관 지어서 네 번의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반전은 선민 유대인들의 확신이 반전을 접하게 됩니다.
선민 유대인들의 확신이 뭡니까?
'내가 혈통 상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상, 나에게는 구원이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확신이에요.
그런데 이 확신에 반해서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또 현실적으로 관찰을 해봐도, 유대인 중에 육이 되어 진 자들이 있습니다, 멸망으로 버림을 받게 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으나,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멸망에 버려진바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확신과 연관된 두 번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들의 확신 속에서, 이방인들은 절대적으로 멸망에 처할 자들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유대인 선민의 확신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바울 당시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러한 유대민족의 현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올 때까지 계속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유대민족의 현실을 볼 때에, 그들이 완전히 멸망에 처해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반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 중에서 다시 유대민족이 충만한 숫자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은, '신앙인이 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찍어버리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민인 유대인 중에서 하나님이 유대인의 일부를 멸망에 처하게 하신 것과 똑같이, 신앙인이 된 이방인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이방인들 중에서 그 가지를 다시 잘라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참 감람나무에 붙어있던 본래의 가지도 잘라 버리셨으니까, 하물며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던 것이, 참 감람나무에 접붙여진 상태였던 이방인 신자들도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확신과 연관되어진 네 번의 반전이 언급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지금, 오늘 죽으면 오늘 밤이라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합니다.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힘 있게, 그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단호한 어조로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면 천국에 가는 겁니까?
한 번 물어볼까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아직도 자기들 민족을 세계에 가장 우월할 민족으로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의 구원의 확신과 우리들의 구원의 확신 중 어느 쪽이 더 강렬할까요?
유대인의 확신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에 처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확신과는 무관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내 마음 속에, 나는 천국에 갈 거라고 확신을 하고, 또 확신을 하고 더블 트리플 확신을 해도, 그 트리플 확신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구원에 대한 확신을 포함하고 있지만 전제가 있습니다.
확신 이전에 확인이 돼야 되요.
그리고 내 구원에 대한 확신보다 더 앞서야 될 확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천국이 있을 것을 믿고, 내가 천국 갈 것을 믿는데?’
아니요, 그건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세뇌에요 세뇌.
확신은 뭐냐?
지금 돈이 이렇게 눈앞에 있잖아요? 이 돈 무더기보다도, 눈앞에 보이는 돈 무더기를 누가 나한테 준다고 그럴 때, 그 돈 무더기를 갖게 되는 그 현실보다도 먼저 천국이 나의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내 통장에 지금 돈이 없다는 현실보다도 앞서서 천국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현실이 된다는 것은, 돈이 있다 없다를 내가 느끼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천국이 현실일 경우에는 천국을 가졌다는 만족감과 기쁨과 행복감에 의해서,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있어도 그 돈을 나를 위해 쓰게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천국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마찬가지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울 왕이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사울 왕의 마음속에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과 다른 점이 뭡니까?
다윗은 만군의 주 여호와라는 것을 현실로 확신하고 있었고, 사울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구원을 받은 상태인 겁니다.
근데, 천국이 제 1현실도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1현실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나는 천국에 간다는 확신만 입으로 떠들고 있다고, 그것이 천국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장로교를 창시한, 캘빈의 신학사상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신앙고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입니다.
거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에 보면,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하여’라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 18장 1절에,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에 대한 확신에 관해서 언급하는데 제일 먼저 뭘 얘기하고 있냐 하면, 잘못된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들과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있으며 구원의 상태가 있기나 한 것처럼 거짓된 소망과 육적인 오만에 빠져서 허망하게도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소망과 육적인 오만은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 삼는 게 뭐냐 하면,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구원의 상태가 바른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즉, 구원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건, 구원에 대한 확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이 돼야 되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천국에 대한 확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에 가장 가까이 있는 첫 번째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과 천국이 첫 번째 현실이 되어있는 그 상태가 바로,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구원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냥 입으로 내가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선민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반해서, 그들이 버림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버림을 받았다가도 다시 그들이 믿음만 갖게 된다 그러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 그러면, 다시 또 구원으로 들어올 것을 얘기합니다.
유동적인 거예요 지금, 사도바울의 말에 의하면.
제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본문 말씀을 그대로 보면.
그리고 이방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구원과 관계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역시,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하면 '원 가지도 믿지 않을 때 잘라 버렸으니, 접붙여진 가지야 당연히 하나님께서 잘라 버리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걸림이 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로마서 8장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사도바울이 말하는 걸 기억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구절이, 캘빈의 5대 교리 중에 마지막 번에 나오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에 근본이 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일단 예수님을 믿고 은혜와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은혜와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작정하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물론, 그렇게 은혜 안에 들어오고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넘어지고, 죄악의 어떤 그 잔재에 의해서 시험에 걸리기도 하고, 은혜와 구원의 효과를 상실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끝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이 교리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오해의 이유가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할 때 견인이라는 건 오래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걸 말하는데, 결국 구원과 은혜가 궁극적으로 마지막 목표점까지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성도의 견인인데, 이 견인이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견인이라는 말은 그냥 뒤따라오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말에 초점을 맞추어서, 정확히 내가 성도가 아닌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으면.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은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떨어질 수 없고, 궁극적으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 성도들은, 마지막 날까지 은혜의 상태를 견지할 수 있고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견인에 초점을 맞추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근데, 지금 나는 성도의 상태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견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자꾸 내가 구원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상태가 개선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견인에 초점을 맞춰서 가르치니까 자꾸.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냥 거기 앉아 있는 사람 다를 향해, 당신들은 일단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 끝까지 구원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해 버리는 겁니다.
이건 사기이지요.
교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교회에 마음을 붙이게 하고, 그런 사기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럼 성도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7장 1절에 보면, 성도라고 하는 걸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용납하셨고, 그의 성령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킨 성도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용납하시고 성령으로 부르셨고 성화시킨 자들이 성도에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들 안에서 용납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주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믿게 되면, 세상에 대해 죽은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 산 것으로 되어서, 하나님께서 용납하신다는 건, 이제 나에게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용납하신다는 얘기에요.
이건 다시 말하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상태라는 건 뭘 말하느냐 하면, 지금 내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적어도 사랑을 완성하고 있지는 못하더라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있고 구원 안에 들어와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가 사랑한다는 게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행복해 하는 거, 이게 바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러기를 소망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왜 선택했습니까?
자기의 마음에 비움을 채우고, 빈 곳에 모셔 들이고, 그래서 마음이 배불러서 만족하게 되고, 기뻐지고 행복하게 되는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돈이 있으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면서, 자식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면서, 내가 출세하고 인기를 얻으면 기쁘고, 인기를 못 얻으면 슬프면서, 교회 다닌다고 장로 됐다고 집사 됐다고 권사 됐다고 목사라고, 나는 구원을 확신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가 아니면서.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성도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을 해야 바르게 된다는 얘기

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끊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유대인이 끊어진 것을 보고 교만해지고, 그러면 끊어질 것이다.'
교만해질 수가 없지요, 성도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선택하신 은혜 위에서 된 것이라고 믿고, 그 구원 안에 머물고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로 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버려진 유대인을 보면서 자고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 바깥에 있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려진 자들은 바깥에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버려짐을 받듯이, 지금 구원 안에 들어왔다고 믿고 있지만, 교인이 되었지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성도가 아닌 겁니다.
진짜 성도라면, 혹시 잘못 돼서 실수를 해서 죄를 범하게 되고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요.
진짜 성도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의 이유로 삼으려고 소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는, 유익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견인에 초점을 맞출 때 잘못된 확신이 지속되면, 그 길로 그냥 멸망으로 직행해 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시고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잘못된 구원의 확신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여지도 없이 멸망으로 이끌어 감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구원의 상태에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신앙적 결단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